



무각사, 그림에 새긴 반야심경 1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지장보살 점안식에 참석한 신도들이 설범전에 설치된 촬영성 화백의 '반야심경' 서양화 작품(가로 8m×세로 2.5m)을 살펴보고 있다. 작품에는 반야심경 270자와 사천왕·각종 보살이 그려져 있다. 황 화백 특유의 시선으로 형상화한 불상들이 눈길을 끈다. 작품은 오는 24일 봉안식때 일반에 공개된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野 대선주자들 앞다퉀 호남민심 구애 ‘소외 해소’ 해법은 없고 구호만 난무

오늘 市·道, 광주전남연구원 대선 공약 토론회...지역 미래 바꿀 비전 제시해야

제19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대권주자들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발굴해 ‘정권교체’와 함께 광주·전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철저하게

호남 소외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정부에서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사업에 필요한 시기와 절차, 예산 등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광주·전남지역을 찾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한 채 ‘호남소외 해소’와 ‘예산 배려’ 등의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현재 각 정당이 광주·전남도와 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지역별 대선 공약을 내놓긴 이르겠지만, 호남민심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려면 지역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골간은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광주·전남지역 공약 이행률이 저조했던 만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역민들

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약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으로 다음 정부

에서는 호남 출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오후 3시 연구원에서 ‘19대 대선 광주·전남 지역공약 대토론회’를 연다. / 최권일기자 cki@

北 김정남 피살

김정은 이복형 ...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사진)이 현지시간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한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시됐던 김정남은 2001년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 이후 권력에서 밀려나 마카오와 중국 등지를 옮겨가며 ‘자의 반 타의 반’의 해외생



다 체포돼 추방된 바 있다.

활을 해왔다. 2001년 5월 김정남은 아들 및 두 명의 여성을 대동하고 도미니카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된 바 있다. /연합뉴스

5월 21일 계엄상황일지 헬기 작전일지 공개해야

한민구 국방장관 “5·18 헬기 사격 진상조사 협조하겠다”

국회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변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사실 무관’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14일 진상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구체적인 (헬기 사격) 증거가 나온 만큼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군에 있는 자료로는 확인이 제한된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러지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및 출동 자체가 없었던 그동안의 주장과 달랐던 태도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을 통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군 지휘부에서 “무

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탄흔 증거가 없으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계엄상황일지(1980년 5월 21일지·10장) ▲광주 투입 항공대 헬기 운용 상황일지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문서는 각각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진상을 규명해줄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발포명령자 규명과 헬기 사격 진상 규명을 위해선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상황일지, 항공대의 시간대별 작전내용(수송, 탄약소모 등)이 담긴 작전일지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공수부대의 도청 앞 집단발포 당일 계엄상황일지 10장이 사라진 사실을 수년 전 확인했지만 국방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내용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내일 실질심사 17일 오전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

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권 등을 지난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측은 “지난번(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